

# Global Goings-on

## WHO

### 아동사망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 (Millennium Development Goal), 신생아 보호 개선이 관건

- 2010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40%가 출생 후 한 달 만에 발생.
- 2010년 세계보건통계에 실린 새천년개발목표(MDG)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출생 후 첫 달 동안의 신생아 보호를 개선하는 것이 개도국에서의 아동사망률을 낮추는데 관건.
  - 전세계적으로 약 40%의 5세 이하 아동 사망이 출생 후 첫 달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대부분은 첫 주에 발생함.
  - 5세 이하 아동의 사망은 1990년 1천2백5십만 명에서 2008년 8백8십만 명으로 30% 감소함.
- MDG의 목표기한인 2015년까지는 5년이 남은 가운데 보건분야 MDG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음.
  - 체중미달 아동의 비율이 1990년 25%에서 2010년 16%로 감소
  - 2001년에서 2008년까지 HIV 감염율은 16% 감소
  - 전세계 인구의 안전한 식수 사용 비율이 77%에서 87%로 상승, MDG에 근접
-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라별, 지역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함.
  - 아동 사망률은 리베리아, 시에라 리온, 모잠비크, 르완다 등과 같은 몇몇 저소득 국가에서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는 내부 갈등, 비효율적인 정부, 인도주의적, 경제적 위기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.
  - 모성 사망률에 관한 한 MDG 목표에 근접한 개발도상국은 극소수.
  - 중국과 이집트 등의 나라에서 다소 진보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모성 사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국가시스템

을 구축하는 데 투자가 필요함.

- 또 다른 과제는 서브사하라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말라리아 예방용 침실 방충망을 제공하고 영양결핍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임; 영양결핍은 아동 사망원인의 30%를 차지함.

• 2010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:

- 아프리카 9개국, 아프리카 외 29개국이 MDG의 말라리아 퇴치 목표에 근접해 있으나 2008년에만 2억4천3백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려 8십6만3천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5세 이하의 아동임.
-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새로운 HIV 감염 발생 수는 16% 감소; 2008년 한 해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2백7십만 명; 2008년까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4백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5백만 명은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.
- 성공적인 치료로 결핵 환자 수는 감소 중임; 非 에이즈 환자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2001년 1백7십만 명에서 2008년 1백4십만 명으로 감소.

•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을 기한으로 유엔이 보건과 개발 여덟 분야에 세운 목표

- 2010년 세계보건통계는 WHO의 193 회원국이 보고한 100가지 이상의 건강지표들에 근거한 연차 보고서로 세계 보건 현황에 대한 개요임.

2010년 5월 10일 / World Health Organization  
<원문 링크: [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news/releases/2010/newborns\\_20100510/en/index.html](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news/releases/2010/newborns_20100510/en/index.html)>

## 영국

### TV시청이 유아에게 미치는 장기적 피해

- 유아의 TV시청시간이 길수록 10세가 되었을 때 학업능력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음.
- 미시건 대학과 몬트리올 대학은 어린이 1,3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공동연구에서 유아 시기의 TV시청 시간이 길수록 성장 후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사실을 발견함.
  - TV시청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불량식품 소비율은 높아짐.
  - 영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질의 TV프로그램 시청은 허용 가능함.
  - 이 연구는 퀘벡시의 “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종단연구”(Quebec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Main Exposure)의 일환으로 부모들에게 자녀가 29개월일 때와 53개월

- 일 때 TV를 얼마나 시청했는지를 설문 조사함.
- 평균적으로 2세 아이들의 TV시청 시간은 주당 9시간 미만이며 4세 아이들의 경우는 15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음.
  - 그러나 2세 아이들의 11%와 4세 아이들의 23%는 일일 최대 권장시간인 최대 2시간을 넘게 시청함.
  - 이 아동들이 10세가 되었을 때 아동의 교사들을 통해 학업 성취도, 건강과 태도, BMI를 측정.
  - 2세 때의 TV시청 시간이 길수록 10세 때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특히 수학 성취도는 매우 낮음.
  - 또한 일반적 신체 활동 수준이 낮고 청량 음료 섭취율과 BMI가 높음.
- 몬트리올 대학의 린다 과가니 박사 - “유아기는 뇌의 발달과 행동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이 기간 동안 TV시청을 오래 하게 되면 그만큼 미래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TV를 시청하게 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지, 행동 및 운동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과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우리는 TV 시청의 영향이 7살 정도가 되면 사라질 줄 알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놀랄 만큼 지속적이었습니다. 따라서 아동기의 지나친 TV시청은 공중보건에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.”
  - 영국의 National Literacy Trust는 유아들의 TV시청을 감독할 필요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.
    - 이 캠페인은 2세 이하의 아동이 TV시청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전까지 부모가 아동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식사시간, 취침 전 시간, 독서 및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 등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언어능력 제고 활동을 확대할 것을 권장함.
    - 2세에서 5세의 아동이 양질의 교육TV를 시청하는 것은 권장함.
  - 영국심리학회(British Psychological Society) 회원인 에릭 시그만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지나친 TV 시청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음 - “내가 5년 전과 3년 전, 정부에게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연령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발행할 것에 대해 권할 때만 해도 이 제안은 급진적이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의 TV시청이 아동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”
- 
- 2010년 5월 3일 / BBC News  
(원문링크: <http://news.bbc.co.uk/2/hi/health/8654963.stm>)

## 멕시코

### 줄어드는 아이들 소리 떨어지는 출산율과 그 의미

- 미국은 남쪽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담장, 군인, 적외선 카메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이민 숫자가 줄어들 전망.
  - 한 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멕시코의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.
  - 1960년대 멕시코 여성들은 평균 7명의 자녀들을 출산 - 당시 인도의 여성들도 6명 이하의 자녀들을 출산.
  - 현재 멕시코의 평균 출산율은 2명 정도로 미국의 출산율 수준.
  - UN은 2040년부터는 멕시코의 출산율이 미국의 출산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.
- 멕시코 정부는 40년 전, 국가건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에서 산아제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
  - 오늘날, 멕시코 여성 10명 중 4명이 불임수술을 받음 - 이 극단적 조치는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불임수술 외의 다른 피임 방법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멕시코 시티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낙태시술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함.
  - 여성들의 교육 및 취업율,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

가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.

- 출산율의 저하는 한편으론 국가의 짐을 더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문제가 되고 있음.
  - 1970년대엔 해마다 학교 정원이 4%씩 증가하였음.
  - 멕시코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(UNAM)의 인구학자인 카를로스 웰티씨는 여전히 해마다 2백만 명의 새로운 멕시코 인들이 태어나고 있음을 지적 - 이 숫자는 1970년대의 수준과 유사함.
  -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는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상태 - UNAM은 지원자를 거의 모두 다 입학시켰으나 현재는 지원자 90% 이상을 거절하고 있음.
  - 멕시코의 총인구는 2043년 1억3천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급속히 노령화 되어 가고 있음.
  - 유럽에서 100년 걸린 노령화가 멕시코에 서는 30년 만에 진행되었음.
  - 1980년 멕시코의 평균연령은 17세였으나 현재는 28세.
  - 현재 10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나 30년 내엔 네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.
  - 현재 여성과 아동에게 중점적으로 맞춰진 보건의료시스템은 노인병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이 조정되어야 함.
-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.

- 멕시코시타에서 창문을 닦고 CD 해적판을 파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.
- 7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오늘날 소규모의 가족이 노인들을 부양하기란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.
-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의 호르헤 로드리게스 - “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 보장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. 하나는 멕시코의 거대한 암시장이 공식경제로 유입되어 보다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연금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. 다른 하나는 연금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.”
- 멕시코의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 - 미국은 멕시코의 각 세대 노동력의 절반을 흡수해 왔음.
  - 2050년이 되면 20대 멕시코 노동인구가 현재보다 20% 줄어들 전망.
  - 이민 노동에 의존하는 미국 남부 주들의 농업, 건설, 보건 분야에 가용 노동인력풀이 줄어들게 될 것임.
- 반면, 멕시코인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함.
  - 따라서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현재보다 십 년은 더 머무를 수 있어.
  - 더욱이,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은 고향에 남아 있는 멕시코인들보다 더 건강함.
  - 로스앤젤레스 Chapman University의 도시 역사가 조엘 콧킨씨 - “멕시코가 미국을 수태시켜 왔다.” - 이민이 준다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인구는 증가할 것.
- 역사는 인구와 이민 관계를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침.
  - 1950년대 멕시코에 베이비붐이 일어났을 때 이민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멕시코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이 시작됨.
  - 오늘날의 저출산율은 이민율을 낮출 수도 있으나 이민의 주된 원동력은 여전히 국경을 끼고 있는 두 나라의 경제적 호황과 불황일 것임.

---

2010년 4월 22일 / The Economist  
〈원문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987105&story\\_id=15959332](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987105&story_id=15959332)〉

# 보건복지포럼

매월 발행되는 『보건복지포럼』은  
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 
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**보건복지정책 전문지**입니다.

## 2010년 6월호 (통권 제164호)

등록번호 서울라 10118  
등록일 1996년 10월 1일  
발행일 2010년 6월 1일

편집인/발행인 김용하

편집위원장 정경희

편집위원 강신욱 강혜규 김태완  
박실비아 손창균 이소정  
여유진 최은진

인쇄 대명기획(TEL: 2263-1292~3)

가격 4,000원

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(122-705)서울 은평구 진흥로 268

대표전화 (02)385-8149, 380-8000

FAX (02)355-9500

E-mail editor@kihasa.re.kr

## 정기구독안내

### ■ 신청방법

연구원 홈페이지([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\\_06\\_03.jsp](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6_03.jsp))에서 회원등록을 하십시오.

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
(<http://www.kihasa.re.kr>)-「발간자료」-  
「간행물회원등록」

정기구독/배포문의 김상욱  
TEL: 02)380-8234 / FAX: 02)355-9500

### ■ 정기구독회원 특전

1. 연간구독료는 35,000원입니다. 날권 구입에 비해 연간 약 50%가 할인된 금액입니다.
2. 정기구독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「보건복지포럼」, 「보건사회연구」를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■ 구독료 납부

우리은행 019-219956-01-014

■■■■ **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!**

『보건복지포럼』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kihasa.re.kr>)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

금광에서 금을 캐듯,

조사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!!!



<http://www.kihasa.re.kr>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규모의 조사사업을 통해 얻어진  
질 높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, 인구분야의 자료를  
관심 있는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세부내용은 **보건사회통계센터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TEL: 02) 380-8245, 380-8153 FAX: 02) 383-6206

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# 보건복지조사사업 원시자료 이용안내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**보건의료 및 사회복지, 인구분야**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## 원시자료 목록



- 2008 장애인 실태조사
- 2008 환자조사
- 2007 차상위계층 실태조사
-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
- 2005 환자조사
- 2005 장애인 실태조사
- 2005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
- 미혼/기혼
- 2002, 2003, 2004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  
조사(가구/개인)
- 2004 차상위 실태조사(가구/근로능력자)
-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
- 가구/노인/(노인+가구)
- 200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
- 2002 환자조사
-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
-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
- 2000 장애인 실태조사
- 1999 환자조사 - 퇴원/기관/외래
-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
- 가구/노인/(노인+가구)
-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
- 가구/부인
- 1997 우리나라 치매노인 실태조사
- 1996 환자조사 - 퇴원/외래
- 199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 
- 국민건강/보건의식
- 1994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
-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
- 가구/가구원/부인
- 1992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
-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
- 기혼/미혼/부인/임신력/임신 및 출산/  
출산/취업/피임력

## 조사자료 담당자 연락처

TEL: 02) 380-8245, 380-8153      FAX: 02) 383-6206

E-mail: yhlee@khasa.re.kr, choint@khasa.re.kr

Homepage: <http://www.khasa.re.kr>

